

타이거즈와 32년...아듀! 무등야구장

‘목포의 눈물’도 V10 환호도 추억속으로

눈물의 구장이 추억의 구장이 된다. 4일 무등경기장에서는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2013 시즌 최종전이 열린다. 이 경기를 끝으로 무등경기장은 타이거즈와 함께한 32년의 세월에 작별을 고한다. KIA는 내년 시즌 완공을 눈앞에 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로 안방을 옮긴다. 32년이라는 타이거즈의 역사도 낡은 건물과 함께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오늘 프로야구 마지막 경기 1030만명 찾아 ‘울고 웃고’

◇32년간 타이거즈의 인방
추억이 될 무등경기장은 눈물의 구장이었다.

호남민의 한이 담긴 ‘목포의 눈물’이 낱두리처럼 흐르던 곳이자 V10의 뜨거운 환호가 담긴 곳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서러워서 울었고 또 기뻐서 웃었다.

무등경기장의 역사는 아픈 기억과 함께 시작된다. 1965년 제46회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축구장과 야구장을 건립하면서 탄생했던 무등경기장. 첫 이름은 광주공설운동장이었다.

사람들에게 첫 선을 보이던 전국체전 개최식날 구를 관중이 몰리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무등구장의 시대는 14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로 무겁게 막이 올랐다.

1977년에도 이곳에서 제58회 전국체전이 열렸다. 그때부터 무등경기장이라는 이름이 사용됐다. 스포츠 중심지였던 무등경기장은 김대중 대통령 유세현장 등 정치의 현장이기도 했다.

1982년 무등경기장에 ‘해태 타이거즈의 홈구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5·18 민주항쟁 당시 수많은 택시와 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도청으로 향했던 출발지는 이내 시민들이 한을 푸는 집결지가 됐다.

정치적 소외지로 숨죽여 있어야 했던 호남민들의 마음을 달래준 것은 아이러니하게 1982년 정치적인

배경에서 탄생한 프로야구였다.

1983년 프로야구 출범 2년 만에 해태 타이거즈가 우승을 이루면서 고교야구로 마음을 달래던 사람들의 눈길이 무등경기장으로 쏠렸다. ◇기쁨과 설움의 교차 지점

언제나 약자였던 호남이지만 그라운드 안에서만은 누구도 쉽게 상대할 수 없는 강자였다. 악으로 강으로 그라운드를 달리며 상대를 찢절매게 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자부심이었다. 무등경기장 불이 켜져 있는 순간만큼은 무서울 게 없는 강자였던 시민들은 관중실에서 타이거즈를 외치고, 김대중을 외치며 한이 서린 눈물을 흘렸다.

수천 명이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유일했던 합법적 공간에서 사람들은 이내 친구가 됐고, 형님 동생이 됐다. 경기가 승리로 끝나는 날은 흥으로, 패배로 끝나는 날은 아쉬움으로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로 근처 포장 주차장은 불야성을 이루기도 했다.

V10이 만든 기쁨의 눈물도 있었다. 1982년 우승은 타이거즈 왕조의 시작이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써내려간 타이거즈는 1991·1993년에 이어 1996·1997년 2년 연속 챔피언 자리를 지키며 V9를 이뤘다. 그리고 지난 2009년 나지완의 극적인 끝내기 홈런으로 타이거즈는 12년 만에 다시 리그 정상에 밟으며 팬들을 울렸다.

〈3면에 계속〉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와 전신 해태 타이거즈의 홈구장으로 쓰이며 32년간 프로야구 시대를 동고동락한 광주 무등야구장이 4일 KIA-넥센 전을 끝으로 한국 프로야구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개막경기에 운집한 야구팬들(맨위). 1982년 해태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에서 ‘홀런왕’ 김봉연이 홈런을 날린 후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홈인하는 모습(가운데). 해태 타이거즈 선수들이 1983년 한국시리즈에서 MBC 청룡을 4승 1패로 누르고 첫 우승을 차지한 후 금남로에서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을 하루 앞둔 3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페라리의 메카닉(정비요원)들이 점검을 마친 머신의 타이어와 부속을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 F1 ‘꿈의 레이스’ 시동

오늘 개막...페텔 연승·결승 수중전 여부 불거리
개최권료 40% 낮춰 ‘적자 줄이기’ 성공대회 관건

세계인의 심장을 뛰게 할 F1 코리아 그랑프리(6일까지)가 4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특히 올 대회는 F1 매니저먼트인 FOM과의 협상을 통해 500억원(4370만달러) 규모인 대회 개최권료를 40% 줄여 200억원가량 부담을 덜어준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올 한국대회에서는 경우에 따라 제바스티안 페텔(레드불)의 시즌 우승이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에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예상되며, 태풍의 영향으로 빗속 결승전이 치러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4일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5일 예선전, 6일 결승전으로 치러진다. 최근 치러진 3개 대회(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에서의 연이은 우승으로 기세가 오른 페텔의 연

승 여부가 가장 흥미로운 불거리다. 날씨에 따른 각팀의 치열한 전략대결 또한 불거리다. 복상하는 제23호 태풍 피토는 레이스가 펼쳐지는 6일

경기장 외적으로도 이번 F1 한국대회는 의미가 크다. 총 7년 개최 기간 중 4회째로 반환점을 돈 F1 한국대회의 정착을 위해 올 대회에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전남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남도의회와 적자 규모를 150억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F1 조직위는 FOM과 개최권료 협상을 벌여 200억원가량 부담을 덜었지만 대기업의 참여 저조와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늦어지면서 ‘적자 150억원 이하’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

않은 상태다.

또 FOM과의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대회 4월 개최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올 10월 대회를 치른 뒤 내년 4월에 또 한번 대회를 준비하는 건 일정상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전남도는 이 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영국 스포츠채널 스카이스포츠는 2일(현지시간) F1 한국대회가 올해를 끝으로 더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 등 대외적으로 F1 한국대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올 한국대회의 성공 여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세정투어여행사 (삼주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남해여행사 (목포 한시랑병원)	061)287-4100
보라여행사 (순천 언세백화점 2층)	061)724-1688

하나투어 창립기념일 맞이
[무안출발] 특가 상품 ★20% 한정★

[CBPF01-OZG] 북경(베이징) 4일 399,000원 ~ 출발일 11월 매주화요일 출발 ●호텔: 준 4성급 2박 / 순회일 1박 ●특징: 만리장성 케이블카, 천안시시, 불타사지	[OCPP34-MUC] 상해/항주/황산 4일 499,000원 ~ 출발일 11월 6일 수요일 출발 ●호텔: 전일 5성급 호텔 2박 ●특징: 전일 5성급 호텔 2박, 상해의 번화대로 커미언트 제공
---	---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여행의 계절 가을,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장가계 직항 전세기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절경

무안출발 10월 8일(화)~11월 12일(화) 총11회
매주 화요일(3박4일)/금요일(4박5일)

[CJPF01-FM] 장가계/원가계 4일 ●원문산 케이블카*특식점*발사사지 899,000원 ~ 관광: 천문산, 보령호수, 호기축물정원, 천지산, 원가계, 심리화랑, 금관계곡, 황룡동굴 등 ●특징: 발사사지, 리무진 차량이용 ●특식: 삼경살 푸제안, 자바사모, 메기대운탕	[CJPF01-FM1] 장가계/원가계 4일 ●원문산(산과곡죽도)*특식점*전사사지 999,000원 ~ 관광: 천문산, 천문산사+귀곡죽도, 보령호수, 호기축물정원, 천지산, 원가계, 심리화랑, 금관계곡, 황룡동굴 등 ●특징: 전사사지, 리무진 차량이용 ●특식: 삼경살 푸제안, 자바사모, 메기대운탕
[CJPF01-FM1] 장가계/원가계 5일 ●황석재*천문산(산과곡죽도)*특식점*발사사지 949,000원 ~ 관광: 천문산, 천문산사+귀곡죽도, 보령호수, 호기축물정원, 천지산, 원가계, 심리화랑, 금관계곡, 황룡동굴 등 ●특징: 발사사지, 리무진 차량이용 ●특식: 삼경살 푸제안, 자바사모, 메기대운탕	[CJPF01-FM1] 장가계/원가계 5일 ●황석재*천문산(산과곡죽도)*특식점*발사사지 1,049,000원 ~ 관광: 천문산, 천문산사+귀곡죽도, 보령호수, 호기축물정원, 천지산, 원가계, 심리화랑, 금관계곡, 황룡동굴 등 ●특징: 전사사지, 리무진 차량이용 ●특식: 삼경살 푸제안, 자바사모, 메기대운탕

JDX와 함께하는
제27차 글로벌 골프챌린지투어

하나골프

캄보디아 씨엠립 5일
부영 C.C

[AVG1611311280Z1/KE1]
출발일 11월 28일(목) ●54H● 샌슈리 1,399,000원 ~

[AVG1611311280Z2/KE2]
대회일 11월 30일(토) ●36H● 골프+관광 1,249,000원 ~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호텔: 씨엠립 센수리 호텔(5성급)
●포함 및 특선사항
① 캄보디아 5성급 ANGOR CENTURY HOTEL 투숙
② 골프 그린피, 가이드/기사 TIP, 11월 30일 대회당일 전통복/캐디티켓 포함
③ 캄보디아 도착비(저녁) 500 포함
●불포함사항: 대회당일 외 캐디, 캐디, 전동차, 클럽/수트렌탈, 기타 개인경비

※대회코스: BOOYOUNG G.C(舊, ANGOR LAKE G.C)
※대회진행 및 방식: 세미샷건 or 풀샷건/신페리로 방식
※대회시상: 신페리로 우승, 메달리스트, 통기스트, 나이어리스트, 출신원 이벤트
※시상품: 트로피, 캐디백, 보스탄백, 골프클럽, 골프바디, 왕복 항공권 등
※출원신청: 스타크루즈 2인 무료 여행권 + 세인트니틴(167) 20SET
※시상품 및 경품: JDX협찬 경품, 항공권

호주/뉴질랜드 남북선 10일
4,500,000원 ~

입장 11월 20일 ~ 11월 29일 / 8박 10일
●호텔: 11박 12일 여행(호텔, 왕복항공권, 항공 TAX 및 유류료, 입장료, 숙박 및 식사, 관광, 입장료, 카사이드가이드)
●포함: 호텔, 입장료, 유류료, 카사이드가이드, 카사이드가이드

[부산출발] 설운도 및 정준하 콘서트
남만 큐슈여행 4일
[KJP74131025BK1]
[부관철회] 북큐슈여행 4일
279,000원 ~ 239,000원 ~
●호텔: 하라쿠마 호텔(5성급)
●포함: 하라쿠마 호텔, 카사이드가이드(2명만)
[KJP74131025CRV]
[카멜리아] 북큐슈여행 4일
399,000원 ~ 299,000원 ~
●호텔: 후쿠오카 카멜리아 호텔, 카사이드가이드(2명만)
●포함: 하라쿠마 호텔, 유류료, 카사이드가이드, 카사이드가이드, 국내수송

[AIP133131023OZB]
양곤+바그+내셔널리조트
전용 전동차티켓 미안마 5일
출발일 10월 28일 799,000원 ~
●호텔: 양곤 3성급 호텔
●특징: 양곤 관광차 이용, 현관엔트리 다나카 중점
●특식: 삼경살 푸제안, 자바사모, 메기대운탕, 자바사모, 메기대운탕